

■ 2025년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제작, 창작공간) 연극/뮤지컬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제작, 창작공간)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4년 12월 6일(금) 10: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4년 12월 16일(월), 17일(화) 09:00~20: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건표, 남윤일, 우연, 정안나, 황진수

2025년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제작, 창작공간) 지원사업의 심의 평가는 어느 해보다도 엄격한 공정성 유지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담심의위원 제도 도입으로 공정성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담팀들도 심의위원 대상으로 온라인 OT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사업 핵심 내용부터 예산편성, 세부적인 평가 항목의 기준과 단년과 다년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창작주체 사업의 개념을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제작, 창작공간) 사업 규모와 공연제작 방향의 성격, 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기획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권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심의 온라인 시스템이 확연하게 편리화되어 각 단체가 제출한 서류들을 페이지 수와 관계없이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환경개선도 심의위원들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공연제작 분야는 결격 대상 1건을 제외한 심의 대상이 125건이었으며 총 지원신청액은 18,837백만원, 배정예산은 3,744백만원이었습니다. 창작공간 분야의 심의 대상은 15건이었으며 총 지원신청액은 1,896백만원, 배정예산은 628백만원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1차 심의 진행 전 약 2주 동안 서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연제작 1차 서류 심의 평가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3년간 공연제작 규모의 적절성과 운영 계획성, 연출과 단체의 역량,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 여부 등 각 단체의 제작환경 변화성도 고려했습니다. 한국 연극, 뮤지컬의 환경과 동시대성에서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질문도 다양했습니다. 연출, 작가, 출연자의 계획성과 극장 환경, 공연 일정도 세부적으로 살폈습니다. 창작공간은 공동기획의 내용과 극장의 컨디션, 적절한 사업 규모와 관객개발이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될 수 있도록 작품개발의 성격과 예산계획, 극장 공간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차 서류 심의를 거쳐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공연제작 분야에서는 39개 단체, 창작공간 분야에서는 10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이틀에 걸쳐 심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제작, 창작공간 분야 동일하게 단체별로 5분 발표와 10분 질의 응답으로 15분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인터뷰 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공연계획의 파급효과, 작품 개발 계획, 단체 운영계획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토대로 발전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있는지와 3개년 계획으로 설정한 사업목표가 현실적으로 단체의 창/제작역량 향상에 효과적인지도 판단하였습니다. 창작공간 분야는 일반적인 극장 운영에서 탈피해 주도적인 극장(공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변화를 계획하는 프로그램인지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연극/뮤지컬분야 공통 사항으로 공연제작 분야에서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기지원 단체들은 짧게는 3개년, 길게는 6개년의 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신규 단체보다 더 높은 잣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신청한 사업이 단체가 운영해 온 기존 중장기 사업에서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차별성이 분명한 사업 내용인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단체들도 3개년 계획이 레퍼토리의 다양화, 배우 역량 강화 집중, 신작 공연발표 계획 등을 세우고 있었는데 기존 레퍼토리의 단순 재발표나 투어성 공연에 집중되어 있거나 신작이더라도 작품개발에 대한 목표와 기획의도, 세부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레퍼토리화 계획이 많았는데 3개년 다년지원인 만큼 단순 재발표, 투어 공연에 그치지 않고 기존 레퍼토리의 지역, 해외 현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및 디벨롭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겠습니까.

창작공간에서도 대중성이 강한 레퍼토리 공연을 위주로 신청하였거나, 공동기획이라기 보다는 단순 외부공연 유치, 극장 인프라와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불명확한 단체들도 있었으며, 운영극장을 특화해 공간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한 다년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다는 점도 2차 심의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창작주체 사업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사업계획과 내용 대비 과도하고 비대칭적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단체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단체 중에는 창작주체 사업을 통해 단체의 체질을 변화하고 사업의도에 부합되는 공연제작(신작)과 레퍼토리의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개발하고 스태프와 창작자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려는 지원단체도 많았다는 점에서 한국 연극과 뮤지컬의 건강한 변화가 기대되었으며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창작공간 단체들도 관객이 감소하는 시대에 절박한 심정으로 획기적인 극장 특성화 계획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한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다년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할 만한 신작, 레퍼토리 개발과 함께 단체의 역량을 주도적으로 성장시킬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 신규 단체가 늘었다는 점은 2025년 공연예술창작주체 사업의 큰 변화 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2차 인터뷰 심의 후 심의위원들은 개별 채점과 심층 논의를 통해 공연제작 분야는 총 25개 단체, 창작공간 분야는 총 7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공고 FAQ에서 공지한 대로 공연제작 분야 중 중장기 사업 기지원 단체의 비율을 고려하여 6개 단체까지만 선정하였고(전체 선정단체 중 24%), 지역균형지원제 적용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6개 단체(전체 선정단체 중 24%)가 선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창작공간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단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3년간의 사업설계와 운영으로 많은 변화와 함께 단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만큼 책임감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년도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사업계획을 재점검하고, 내년 한 해 동안 훌륭한 성과로 이어져 다년지원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심의 결과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보여주신 가능성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 역시 이번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큰 성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원의 기회를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예술적 비전과 노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창작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예술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